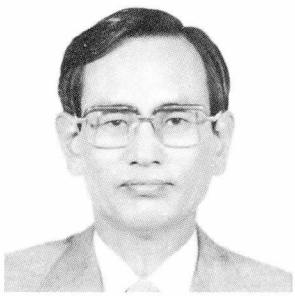
정보화사회와 기상업무

孫 亨 珍



■필 자

▲서울대 물리학과
▲경희대 고체물리 박사과정
▲기상연구소장
▲중앙 기상대장
▲한국 기상학회장
▲연세대·교원대 강사(현)

컴퓨터나 통신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 된다면 일상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정보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전력을 쏟아왔다.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전화가 천만회선을 돌파하여 1가구 1전화시대에 진입하였고 카드전화·오디오텍스·CATV·팩스통신등 장치나 시설이 여러모로 확장되고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또한 데이터통신망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경제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등 그 성과가 여러 면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새로워졌다.

한편, 요즈음에는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실현을 위한 연구와 각종 국제공동연구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과학도로서 새삼 흐뭇함을 금할 수 없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커진다.

일반 국민들도 관련 전문가와 기관들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할 것으로 믿는다.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철도역에서 표를 사는 일,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일등이 전산화되었으므로 과연 정보시대에 우리나라도 돌입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필자는 정보산업분야 밖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고도정보사회화」가 각곳에

서 골고루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난 경험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통신에 생명을 걸고있는 분야 중 하나가 기상업무이다. 기상업무는 관측시스팀·통신시스팀 · 처리시스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점차 긴요한 관측업무가 자동화되고 일기예보나 자료정리의 기술이 수식화됨에 따라 컴퓨터가 필수화 되었고 기상위성이 바다나 사막에서 변동하는 기상을 감시하면서 보내주는 자료도 사용케 되었다. 또한 호우의 변동도 레이다로 감시하고, 천둥 번개나 벼락도 자동 관측하는 기계를 사용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기상」은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기상업무를 위해서 이웃나라, 나아가 세계 모든 지역의 기상자료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현대의 기상업무는 첨단기술과 시설, 정보통신과학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미루어 짐작되는 것은 「정보통신」 업무가 국제성을 띤 기상업무에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상업무의 발전은 정보산업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목표와 진척을 감안하여야 비로소 논할 수 있다. 기상대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COMIS, MESDAS 등) 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기상업무의 이론과 실무는 물론 컴퓨터, 정보통신등의 국내 추세와 세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요원들이 과거보다 더 요청된다

한편, 국제적으로 세계기상기구(WMO, 제네바 소재)는 세계전기통신연맹(ITU, WMO와 인접)과 협력관계에 있다. WMO가 종합정보통신망(ISDN), 전산망프로토콜 (예컨대 OSI), 위성통신 문제등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정보통신이나 이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비록 대기과학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상요원은 정보산업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대외적으로 일기예보 등을 발표할 때도 역시 방송이나 정보통신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선진 정보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관련 전담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필요한 공감대의 형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이미 간파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 몇가지 바램을 추가한다면 첫째,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있어 그것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접촉할 기회가 쉽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느낄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이 정보산업의 성숙과 함께 부합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관리층을 위한 계몽은 종전보다 다양해지기를 바라고, 한편으로 일반에 대한 홍보내용이 좀더 쉽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발전동향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므로 설명에 있어 경제적인 이득과 사용상의 편리성을 더욱 강조하는데 촛점을 두어 주었으면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자체의 해설에 그치는 경우, 수요자측으로서는 의사결정에 많은 고심이 따른다. 사실은 업무의 전담자도 새로운 기술과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담당한 일이 어느정도 개선될 것인가를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필자도 개별요소들을 종합해본 경험이 있다. 컴퓨터, 데이타통신, 델레마틱스가 무엇인가, 비디오텍스·텔레텍스등은 어떤 잇점을 가져오는가, 원격탐사·화상해석 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이런저런 점들을 실무개발 담당관으로부터 배우곤 하였다. 그때마다 가르쳐주는 실무개발 담당관이 필자의 이해·납득을 위해 무척 고심하는 것이 미안스러웠다.

둘째, 고도정보사회에 대해서 수동적인 층이 관심을 갖도록 역전시키는 노력도 또한 귀중한 것이다. 이런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홍보의 효과는 오히려 바로 여기에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 의사는 아니라도 병이 어느 과에 해당하느냐를 짐작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수동적인 층은 한 두면 (面) 의 홍보지 (紙) 도 힘들게 본다. 그들이 체험한 환경에서 홍보의 소재를 발굴하여 사용하면 이해가 빨라질 것이다.

필자도 흔히 이러한 경험을 하곤 한다. 애널로그형 지진장치, 디지틀형 낙뢰관측장치 등에 관하여 실무개발 담당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나 보람없이 의문만 더했다. 그러나 제작회사가 발행한 해설광고문을 읽고서야 가볍게 이해가 되었다. 광고물의 위력을 그리고 PR광고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망이 가치있는지 염려하면서 건강한 정보화사회를 맞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계속적인 노력이 있길 바란다. ♣